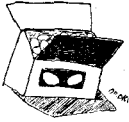


부로일러 사육에 있어서

케이지와 평사의 장단점



유 황

<경기부화장 대표>

지금까지 부화장을 경영하며 흔히 받는 질문 중에 케이지와 평사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하여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설명이 길고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이, 또 가장 막연한 대답을 할 때가 위의 질문이다.

왜냐하면 위 두 가지 사육의 장단점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며 또 각자 주어진 환경과 규모 내지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장단점이 바뀔 수 있다는 문제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장단점을 들어보고 규모에 따르는 방향 선택 및 자본의 투자액, 유통과정, 시장의 요구성, 관리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장단점에 따라 방향을 선택하여 놓는 것이 좋을 듯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또 느껴진 점을 나열하여 부로일러 사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며 이 장단점이 절대적이지 아니고 개개인의 느낌과 환경,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고(稿)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케이 지 사육의 장점은

- 1) 적은 계사 면적에 많은 마릿수를 수용할 수 있다.
- 2) 초생추 육추시 연료비가 적게 든다.
- 3) 한 사람이 많은 마릿수를 기를 수 있다(평사의 경우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마릿수를 관리할 수 있다.
- 4) 건축 및 시설비가 적게 든다.
- 5) 출하시에 여러 회로 나누어 출하할 수 있다.

6) 예방약 접종시(주로 B₁과 계두) 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

7) 초생추의 강약 및 발육의 차이를 구별하여 약추가 낙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8) 콕시듐 같은 병의 전염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9) 깔짚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장점 중에 계사 면적이 적게 들고 그 속에 케이지를 넣는다고 하여도 계사 면적과 케이지를 기한 면적, 가격당 마릿수, 수용능력이 평사에 비하여 싸질 수 있다는 것이며 5)의 경우 출하할 여러 회로 나누어 하게 되므로 발육이 낮은 것은 더 키워서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여기 나열한 장점이 평사와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면 케이 지 사육의 단점을 열거하면

- 1) 발육이 고르게 되지 못하며(초생추시의 위와 아래의 온도 차이로 발육에도 차이가 생긴.
- 2) 매일 혹은 격일로 계분을 제거하여야 하는 막대한 작업이 필요하며,
- 3) 한번 이동 때마다 케이지의 철저한 소독을 요하며,
- 4) 매 입추시마다 3회씩(초생추·중추·대추 케이지의 순서로) 옮겨야 하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작업으로 인하여 발육의 감소를 초래하고,
- 5) 빠다리병을 발생시키며,
- 6) 초생추시의 발육의 차로 출하시에 발육이 고르지 못하여 한번에 출하할 수 없다는 점이 있

으며,

7) 기계화(자동화)하기 (물주기·사료주기)가 힘들다는 점.

8) 사료효율이 평사보다 약간 높아진다는 점.

9) 도체시의 체구가 부로일러 원형을 갖춘 모양으로 안 되며,

10) 용골이 굽어지는 늪이 많이 나와서 좋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

11) 케이지 시설 및 비품비의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며,

12) 시설이 좋지 못한 경우 다리나 목이 제반 시설에 끼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

13) 적은 면적(공간)에 많은 마릿수를 키움으로 인하여 호흡기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14) 점등을 하는 경우 밝고 어두운 데가 생긴다는 점(케이지의 가림으로 인하여).

15) 같은 날 입추된 초생추가 여러날 걸려서 출하되므로 비품의 이용도가 낮아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케이지 사육의 장단점을 들어보았다. 그러면 케이지에 대한 평사의 장단점은 어떤 것일까?

평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발육이 비교적 고르게 되며,

2) 입추시 1회 소독으로 출하시까지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3) 옮기는 (초생추에서 중추·대추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4)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노력이 훨씬 적게 든다(계분 제거·사료주기·물주기 등의 작업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

5) 기계화하기가 용이하여 인건비가 많이 들 경우 평사를 택해야 한다는 점.

6) 체구가 부로일러에서의 원형을 갖추게 자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

7) 비품비의 감가상각비가 적게 든다는 점.

8) 깔짚을 이용한 미생물의 흡수로 미량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9) 입추 및 출하가 한번에 이루어져서 계사 전체를 철저히 소독하고 며칠 정도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점.

10) 비교적 고르게 성장하여 일시에 출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 평사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계사 면적을 많이 차지하여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점.

2) 예방약 접종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3) 대군을 한번에 사육하므로 발육이 늦은 경우에 낙오가 된다는 점.

4) 출하시 한번에 출하해야 하므로 적은 수의 요구에는 응하기 곤란하다는 점(물론 나누어 판매할 수 있으나 많은 마릿수에서 잡아내는 것이 남은 늪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는 점).

5) 폭시독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염도가 빠르며, 발생 가능성이 많아 전군을 상대로 치료하여야 한다는 점.

6) 깔짚 등 소모품이 많이 든다는 점 등과 기타 여러가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사육하여야 하며 또 어떤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을 배제하여 보다 더 발전하는 사육법을 채택하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규모·자본·유통과정·시장의 요구성과 관리에 따르는 면을 앞에 열거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논하여 볼 때

1) 규모에 따르는 케이지와 평사의 선택 문제
과거에는 적은 면적에 적은 규모로 영계라는 한국 특유의 상품을 요구하여 소수로 판매할 때에는 케이지 사육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시장의 소비성도 넓어지고 마릿수보다 무게를 중점으로 대량 생산을 하여야만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지의 단점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장점에서의 이득을 취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또 요구하는 생산품이 무게로 거래된다는 현재에 있어서는 평사로 사육하여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2) 자본의 투자액에 따르는 케이지와 평사의 선택

앞에 말한 규모의 크기가 곧 자본의 크기와 동

일하다고 하겠다. 다만 앞으로는 부로일러 사육에 있어서도 시설비 등 자본투자액이 많아져야만 될 수 있는 양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3) 유통과정에 따르는 선택문제

과거에는 하루 판매량을 그날그날 구입하여 판매하는 시장조직 속에서 일시에 많은 양을 출할 수 없어서 여러개로 나누어 출하하는(케이지의 장점)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지원으로 도계 공장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냉동 저장하여 판매하는 조직이 차츰 실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입 방법도 과거에는 자전거 등 소형구로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오토바이 등 대형구로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다량 입추, 전량 출하(all in all out)하는 평사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 유통과정의 구조가 변경되어 앞으로는 평사로 사육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장의 요구성 및 관리에 따르는 선택 문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완전히 단백질 식품으

로 일상화되어 질적·양적으로 고급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성에 있어서 질적으로 또는 모양으로도 부로일러 원형을 갖춘 먹음직스러운 체구 모양을 원할 때 역시 평사에서 사육한 것이어야 인기가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도 앞으로의 인건비 상승을 생각하여 사육의 기계화가 요구될 때 평사로 사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선진국가의 부로일러 사육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밝아온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도 앞으로 평사로 규모가 크게 생산되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양계도 세계의 양계와 어깨를 같이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믿으며 경험을 간추려 기록하여 보았으나 누락된 점 또는 관점의 차이로 독자의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 *

☞ p29에서 계속

적으로 높아진 사료를 대체 급여했을 때 숫놈은 6주령에 암놈은 4주령에 교체한 것이 체중 증체량이 높았다고 한다.

부로일러 사료는 전기·후기로 구분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는 단백질 함량이 21~22%, 대사에너지 1,380Kcal/lb 정도이므로 5주령에 교체 급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부로일러 사료에서 가장 고려하여야 될 점은 비타민 함량 특히 라이보푸라빈 B₁₂ 코린과 망간·아연 등의 무기물질의 함량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로일러 사육은 빠다리 사육이 많고 평사일

때도 밀사하게 되므로 모든 필요 영양소가 사료에 급여되어야 한다. 흔히 부로일러 사육에서 많이 발생하는 각약증(Perosis), 발가락 돌아가는 증상(Curled toe-disease) 등이 폐사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병아리에서 오는 것과 사료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통 20일령 전에 나타나는 것은 병아리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고 20일령 후면 사료중에 상술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초기일 때는 수용성 비타민제로 치료 가능하나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료를 바꿀 필요가 있다. *

